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추가 업데이트

제목 : BLUEBIRD, BLUEBIRD

가제 : 파랑새야, 파랑새야

저자 : Attica Locke

출판사: Mulholland Books

발행일: 2017년 9월 1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미스터리/스릴러소설



★ 2018년 에드가 상 수상작! ★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판권 계약

★ FOX 드라마로 상영 예정!

★ 뉴욕타임스 북 리뷰 에디터스 초이스, 워싱턴 포스트 선정 2017년 스릴러·미스터리 부문 최우수 베스트 10, 커커스 리뷰 2017년 최우수 미스터리·스릴러,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로스쿨에서 2년 간 공부한 데런에게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별안간 다른 길을 택했다. 삼촌의 뒤를 이어, 텍사스 경관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아내 리사의 눈에는 이것이 터무니없는 선택으로 보였다. 그러나 데런은 별거도 감수하고 옳은 길을 가겠다는 일념으로 텍사스에서 경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 생활은 녹록지 않았고, 일이 꼬이다 못해 정직 처분을 받게 되기에 이른다. 데런은 위스키 병에 의존한 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만 거듭한다. 이때, 그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떠나온 고향 마을, 애증으로 가득한 텍사스 동부 라크의 늪지대에서 백인 여자와 흑인 변호사의 사체가 며칠 간격으로 발견된 것이다. 정직 상태라 수사 권한은 없었지만 타살 정황이 뚜렷한 이 살인사건을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데런은 서둘러 라크로 향한다.

죽은 흑인 변호사 마이클 라이트는 서른다섯, 시카고 출신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마을을 찾아온 외지인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스무 살쯤의 젊은 백인 여성은 마을 토박이로, 술집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미시였다. 관할 카운티에서는 같은 곳에서 연이어 발견된 만큼 두 사람의 죽음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다. 데런은 지역 주민들 및 목격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류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되는 의혹, 즉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를 무참히 죽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백인들이 응징했다’는 식의 추측을 접한다. 그러나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의 정황이나, 부검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

다. 마이클이 먼저 누군가에게 흠씬 두들겨 맞아 살해되고 며칠 뒤 미시가 역시나 폭행을 당하고 죽은 증거가 뚜렷하게 확인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인종이 다른 남녀가 미시가 일하던 술집에서 희희낙락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종 갈등이 대를 이어 뿌리 깊게 자리한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누군가가 두 사람을 응징한 건 아닐까? 탐문에 나선 데런은 라크를 지배하는 양대 기동, 제네바 스윗과 윌리 제퍼슨이 두 사람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갖게 된다.

해묵은 갈등, 극단적인 두 집단이 공존하는 곳에서 일어난 의문의 살인사건

라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흑인 할머니 제네바는 수년 전 남편과 아들이 살해 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데런은 제네바 할머니의 아들 조 주니어가 미시와 각별한 사이라는 사실과, 미시가 다니던 윌리 제퍼슨이 운영하는 술집이 ‘ABT’라 불리는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 집단의 활동 무대라는 사실을 캐냈다. ‘텍사스 아리아 형제단’의 약자인 이 요상한 집단은 불법 마약거래며 증오 범죄를 일삼는 골치 아픈 단체였다. 미시의 남편인 키스도 열혈 ABT 단원이었다. 제네바의 카페와 윌리의 술집은 흑인과 백인을 깊게 가르는 두 핵심 근거지인 것이었다.

수사가 거듭될수록 마이클과 미시의 죽음 뒤에 놓인 해묵은 감정과 얽힐 대로 얽힌 관계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른다. 미시가 죽은 뒤 윌리 제퍼슨의 아내가 대신 돌봐주고 있던 미시의 아들은 ABT 단원 키스의 아들이 아니라 조 주니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즉 혼혈아임이 밝혀지면서 용의선상에 키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다. 게다가 꼬여버린 족보는 더 오래 전, 제네바의 남편 조가 아들 손에 목숨을 잃으면서 시작됐다는 충격적인 진실도 밝혀진다. 조를 죽인 친 아들은 다름아닌 윌리 제퍼슨이었다.

인종차별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강박에 시달리다 자신이, 혹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미워해야 할 대상임을 뒤늦게 깨닫고 극도의 심적 갈등에 시달리다 벌어진 여러 건의 살인들, 이 비극적인 관계를 풀어낸 데런은 뺏속까지 잘 아는 줄 알았던 고향의 어두운 역사와 배경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새삼 깨닫고, 경찰이라는 직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의 직감이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와도 맞닥뜨린다. 이야기는 데런이 정직 처분으로 이어진 일, 친구 맥이 ABT 단원 로니 말보의 손에 농락당한 뒤 목숨까지 잃은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어질 시리즈를 예고한다.

<저자 소개>

아티카 로크(Attica Locke)는 베스트셀러 소설가이자 폭스(Fox)채널 드라마 PD로 활동해왔다. 2016년 하퍼 리 법률소설 상 수상작이자 베일리 여성 소설상 후보로 선정된 소설 『Pleasantville』, 에드가 상 후보에 오른 『Black Water Rising』, 어니스트 게인즈 문학상 수상작 『The Cutting Season』 등을 발표했으며 에미상을 수상한 드라마 ‘엠페이어(Empire)’의 연출을 맡았다.

Praise for
BLUEBIRD, BLUEBIRD
ATTICA LOCKE

Winner of the 2018 Edgar Award for Best Novel

Coming soon to FX as a TV series

"In Bluebird, Bluebird Attica Locke had both mastered the thriller and exceeded it." --Ann Patchett

"A heartbreakingly resonant new novel about race and justice in America" --USA Today

A New York Times Book Review Editors' Choice

A Finalist for the Los Angeles Times Book Prize

A Washington Post 10 Best Thrillers and Mysteries of 2017

A Kirkus Best Mysteries and Thrillers of 2017

A Financial Times Best Book of the Year

*Best book of the year from Vulture, The Strand Magazine, Southern Living, Bolo Books,
Publisher's Weekly, Book Riot, The Guardian, Lit Hub, The Boston Globe, Dallas News,
Milwaukee Journal Sentinel, Minnesota Public Radio, Texas Monthly, The Daily Beast, and the
South Florida Sun Sentinel*

"A quick course in plotting and nimble characterizations rooted in a vividly evoked setting"—Nicole
Lamy, New York Times Book Review

"Attica Locke's terrific Bluebird, Bluebird (Mulholland) simmers with racial tensions . . . a story told
with Locke's crystal-clear vision and pleurably elemental prose."—Seattle Times

"Powerful . . . Locke is a master of plot who's honed her craft. . . . The deepest pleasures to be found
in Bluebird, Bluebird, though, are in her renderings of those who've loved and lost but still want to
believe in the world's benevolence."—Leigh Haber, O., The Oprah Magazine

"I've never bought the notion of the Great American Novel. I think when literary historians look back,
they'll realize this time had many, but if Attica Locke's "Bluebird Bluebird" (Mulholland) isn't on the list,
I'm coming back to haunt them."—Carole E. Barrowman, The Milwaukee Journal Sentinel

제목 : THE WATER CURE
가제 : 물의 치유
저자 : Sophie Mackintosh
출판사: Hamish Hamilton
발행일: 2018년 5월 24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SF/로맨스소설



- *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팬이라면 주목해야 할 도서 - Amazon UK 책 소개 페이지
- * 출판사 일곱 곳이 참여한 경매를 통해 영국 캐나다 출판 계약
- * 미국, 체코 출판 계약, 중국 오퍼 진행 중
- * 2017년 9월 Penguin Showcase에서 선보인 작가 7명에 포함
- * 2016 White Review 단편 소설상 수상작가
- * 사랑의 잔인성,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그린 대단한 장편 데뷔작

여자가 살아가기엔 너무 위험한 세상, 감정이라는 엄청난 에너지를 제대로 통제할 줄 모르는 여자들이 위험한 남자들에게 휘둘리고 고통 받을 뿐인 세상에서 소중한 세 딸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는 어느 외딴 바닷가에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 그곳의 왕과 왕비가 된 두 사람은 땅에 높다란 철조망을 세우고 바다에도 부표를 띄워 경계를 뚜렷하게 표시하고 리아, 그레이스, 스카이, 세 아이들을 바깥 세상과 철저히 차단된 그 안에서 키웠다. 뾰족한 철조망은 다른 세상, 특히 남자의 접근을 막는 방벽이기도 했지만 이쪽 세상에서의 탈출을 막는 철창이기도 했다. 세상에서 큰 상처를 받은 여성들이 배를 타고 이 고립된 왕국을 가끔 찾아오곤 했다. 그러면 왕비는 짜디짤 특별한 물로 이들의 몸과 마음에 갇힌 고통을 씻어주었고, 세 아이들은 멀찍이서 여행자이자 요양자인 이들을 가만히 지켜보곤 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왕국을 찾아오는 여성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소녀들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떠오른다. “세상이 달라진 건 아닐까?” 이젠 엄마 아빠의 이야기처럼 세상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무렵, 왕국을 뒤흔든 사건이 벌어졌다. 왕이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다. 왕비도, 세 딸 중 누구도 보지 못한 곳에서 홀로 조용히,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을 거둔 왕은 피투성이가 된 신발만 남겼다. 그리고 왕의 존재가 사라진 뒤 한층 고립된 왕국에는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다.

왕과 왕비는 ‘물의 치유’라는 특별한 치유법을 개발했다. 사람이 올바르게 제어하지 못하는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리아와 그레이스는 막내 스카이가 태어나기 훨씬 전 아주 어릴 때부터 왕국을 찾아온 여성들이 엄마의 이끌림을 받아 이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 줄로 늘어선 물잔을 하나씩 비워내며 양동이에 토하고 또 토하는 모습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쉬던 사람들. ‘물의 치유’뿐만 아니라, 부모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끔찍한 일을 당할 때를 대비해 꼭 필요한 생존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 이상 징후의 의미를 제대로 읽는 방법,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치는 법, 그리고 바다에 떠오르는 유령과 맞서는 법, 세 소녀는 늘 대비하고, 조심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남자 때문에 고통에 찌들리다 못해 왕국을 찾아오는 여자들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두려움을 증명해주는 듯했다. 이들의 발길이 뚫해진 건 분명 세상이 달라졌다는 의미일 텐데, 그 변화는 어떤 방향일까? 드디어 여자들도 고통을 덜 받게 된 것일까, 아예 모두 사라져버릴 정도로 완전히 악화된 것일까? 자신들만의 관습, 특별한 의식 속에 오랜 세월 세상과 떨어져 살던 왕국에 그 변화를 알려준 건 뜻밖에도 왕과 왕비가 그토록 막아내려 했던 존재들, 남성들이었다. 왕이 숨을 거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명의 남자가 파도에 휩쓸려 해안가에 나타난 것이다. 리아, 그레이스, 스카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이자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었다. 아이들이 배우고, 그토록 갖고 닦은 ‘긴급 상황’ 대비책은 모두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견한 왕과 왕비가 마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남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여자들에게 해를 가한다는 남자가 아닌, 소녀들이 예상치도 못한 것, 사랑의 감정이 무엇보다 위험한 건 아닐까?

세 소녀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지식, 각자의 상처, 욕망을 지닌 세 남자는 세심하고 정교하게 유지되던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 왕은 세 딸에게 남자가 다가올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수십 번 이야기했었다. 늘 작은 칼을 지니고 다닐 것, 그러나 바로 칼을 빼 들지 말고 다정한 태도를 보일 것, 그들이 가슴 속의 모든 절망을 잊게 만들 만큼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것. 하지만 결국 세 사람은 이들과 사랑에 빠지고 만다. 사랑이 병이라면, ‘물의 치유’법으로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독특한 배경과 스토리가 첫 부분부터 호기심을 자아내는 이야기는 여성이 느끼는 사랑의 고통을 시적이면서도 다소 으스스하고 혼란스러운 문장으로 표현하며 세 소녀가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사건을 그린다.

<저자 소개>

소피 매킨토시(Sophie Mackintosh)는 1988년생으로 「Granta Magazine」, 「The White Review」, 「TANK Magazine」에 소설과 시를 기고해 왔다. 단편소설 「Grace」로 2016년 ‘화이트 리뷰 단편소설 상(The White Review Short Story Prize)’을 수상하고 「The Running Ones」로 같은 해 비라고/스타일리스트 단편 소설 컨테스트(Virago/Stylist Short Story competition)’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Praise for
THE WATER CURE
SOPHIE MACKINTOSH

*Hypnotic, dreamlike and compulsive, a blazing literary debut for fans of **Hot Milk**, **The Girls** and **The Vegetarian***

Eerie, electric, beautiful. It rushes you through to the end on a tide of tension and closely held panic. I loved this book — Daisy Johnson, author of 'Fen'

Creepy and delightful, a portrayal of post-apocalyptic puberty, intermingling desire and despair. It has a pinch of Shirley Jackson, a dash of chlorine, and an essence all of its own — Rowan Hisayo Buchanan, author of 'Harmless Like You'

Powerfully unsettling, immensely assured, calmly devastating. It conjures a world both alien and familiar, exploring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ruelties enacted on women, by men, in the name of their protection, and the noble and ignoble uses to which anger can be put in a perverse world. This is a gem of a novel, and I was bowled over by it — Katherine Angel, author of 'Unmastered'

A work of cool, claustrophobic beauty. Sophie Mackintosh writes devastatingly well about the complexities that women face in loving men, and in loving each other — Eli Goldstone, author of 'Strange Heart Beating'

Stunning... A haunting story of abuse, death, and desire... Chilling and topical, a breathtaking debut — Dazed

[A] wildly confident debut... Take the strange social ceremonies of Yorgos Lanthimos' *The Lobster* and the pheromone-rich claustrophobia of Sophia Coppola's *The Beguiled* and you come close to the world Sophie Mackintosh conjures — AnOther Magazine

Bold, inventive, haunting... With shades of Margaret Atwood and Eimear McBride, you'll be bowled over by it — Stylist (61 Books to Read This Spring)

제목 : THE ENSEMBLE

가제 : 앙상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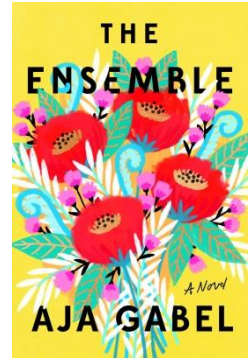
저자 : Aja Gabel

출판사: Riverhead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



★ Buzzfeed, New York Magazine, The Rumpus, The Millions, Huffington Post & Electric Literature 등 수많은 매체 선정 2018년 최고 기대작! 독일, 네덜란드 판권 계약

★ 출간 전부터 Washington Post, The Oprah Magazine, Marie Claire, Poets & Writers 리뷰 예약

★ NPR “Weekend Edition” 출간 직후 방송 예약

★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하모니를 이루지만 늘 함께 공유한 과거로 연결되어 있는 네 명의 젊은 음악가들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강력한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셀레스테 응

좋아하는 일,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열정을 다하는 이야기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도 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감동과 신선한 자극을 준다. 현악 4중주단으로 한 팀이 된 네 명의 젊은이들의 사랑과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생생하게 그린 이 소설 역시 순수한 야망이 주는 감동과 함께 음악이라는 소재가 선사하는 예술적 아름다움, 팀 플레이의 가치를 전한다. 첼리스트로 활동했던 작가가 쓴 이야기답게 음악에 대한 묘사와 연주자들 간의 관계, 음악계의 현실이 현실적으로 그려진 특별한 소설이다.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반 네스 현악 4중주단은 마침 다른 행사로 학교를 찾아온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포도리오에게 몇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솔리스트로 전 세계를 누비며 연주회를 열고 있는 잘 나가는 음악가답게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네 사람의 연주를 지켜봤다. 졸업 연주회는 그저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엄격히 점수를 매기는 평가의 시간이자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에이전트나 음악계 관계자들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반 네스 4중주단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뒤 캐나다에서 열리는 ‘에스터하지 경연’이 이들의 주된 목표였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힘겹게, 가까스로 이어온 음악 활동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팀의 리더인 자나도, 제2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브릿도, 가장 어리지만 재능은 누구보다 뛰어난 비올리스트 헨리도, 그리고 최연장자인 첼리스트 대니엘도 오랫동안 우승을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러나 포도리오와의 짧은 만남은 이들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온다.

사실 포도리오 앞에서 연주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한 건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자나는 그가 올해 에스터하지 경연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연주회나 대회가

임박하면 다른 사람의 공연은 절대 가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철칙을 깨고 자나가 졸업 연주회 이를 전에 열린 포도리오의 협연을 보러 간 것도 같은 목적 때문이었다. 졸업 연주회를 무사히 마치고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자신의 호텔로 가는 길을 굳이 직접 안내해달라는 포도리오의 노골적인 요구도 자나는 역시나 그 목적으로 받아들였다. 경연 우승, 오직 그것만이 어릴 때부터 가난한 형편에 꾸역꾸역 음악을 해온 지난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절실한 기회였다.

얼마 전까지 연인 관계였던 브릿과 대니엘은 갑작스러운 대니엘의 이별 통보로 짧게 끝나고 브릿은 쉽게 이별의 아픔을 추스르지 못한다. 나이도 어리고 별로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지도 않은 헨리가 누가 봐도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 대니엘이 브릿과의 관계는 물론 술한 여성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다 정리한 이유는 바로 그 사실이었다. 철저히 노력파인 자신이 나머지 팀원들, 특히 헨리의 기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수십 배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인정하는 건 너무나 다른 일이었다. 헨리 역시 첫 과외가 끝난 뒤 포도리오가 팀원들 몰래 내민 명함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다. 4중 주단으로 활동하는 대신 솔로로 나서보라고, 뉴욕으로 오면 얼마든지 길을 열어 주겠다는 포도리오의 적극적인 섭외에 헨리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받아 쥐기만 했지만 그 날 이후 머릿속에는 온통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진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느꼈던 처음의 감정은 점점 흐려지고, 또 다른 가능성을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네 명의 하모니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 기계적인 조화가 아닌 몸도 마음도 모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생겨나는 진한 감동의 가치를 아는 네 사람은 음악가로서의 삶을 결정지을 중대한 경연과 기회를 앞두고 각자 갈등의 기로에 선다. 소설은 이들이 풋풋한 젊은이들이던 시절부터 중년이 되기까지 음악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가슴 아픈 이별과 결혼, 큰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예술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밀쳐내기도 하지만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과 비밀, 기억이 밀거름이 된 협주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정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음악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소설이라는 매체로 새로운 음악적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만한 이야기다.

<저자 소개>

아자 가벨(Aja Gabel)은 첼리스트로 활동하다가 작가로 전향했다. 웨슬리언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휴스턴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Kenyon Review」에 실린 에세이 "The Sparrows in France"로 동 잡지로부터 '2015 미국 최고의 에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Atlantic Monthly」, 「Inprint」, Sewanee Writers' Conference, Literary Arts Oregon 등으로부터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Praise for
THE ENSEMBLE
AJA GABEL

"Gabel's wonderful debut centers on the talented members of the Van Ness String Quartet... Seldom has a novel managed to better dramatize the particular pressures that make up the life of a professional musician, from the physical pain of contorting limb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o the emotional stress of constantly making adjustments to the changing temperaments of partners. Readers will come away with a renewed appreciation for things people usually take for granted when listening to music. The four characters are individually memorable, but as a quartet they're unforgettable."—*Publishers Weekly*, Starred Review

"Gabel's first novel explores the ups and downs of their chamber group, the Van Ness Quartet, as their relationships and talents grow and mature. Each character is fully developed, each action and emotion is believable and relatable... Like a talented, well-rehearsed quartet, this is the epitome of gestalt and lyricism. Gabel explores friendship and art with great warmth, humanity, and wisdom. Each of the four parts begins with a selection of chamber music pieces that make a wonderful and fitting aural backdrop."—*Library Journal*, Starred Review

"[A] stunningly resonant debut performance... With remarkable assurance, Gabel takes the four through their shaky early performances and expertly ties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lives together with generous doses of empathy... A virtuoso performance."—*Booklist*, starred review

"An accomplished rendering of the competitive world of classical music."—*Kirkus Reviews*

"Gabel examines the intricate complexities of their intense friendship, loyalties, and ambitions over a decade and a half in this book that itself reads quite like a lyrical composition. You'll come for the music, and stay for Gabel's realistic portrait of modern friendship."—*Buzzfeed*

"Aja Gabel's ambitious debut novel is a beautiful study of just how apt a metaphor classical music is for relationships. When they're in harmony, the group flourishes — they can read each other's cues and communicate volumes without saying a word. And when they're off? Chaos! *The Ensemble* traces the group's progress over a decade, showing how the professional and the personal become inextricably intertwined, in bad times and good."—*Vulture*

"The result is a beautiful novel about friendship, art, and the way we pursue our passions."—*Mashable*

"[An] exciting debut about the power of music and the importance of friendship."—*Southern Living*

"Engrossing... Writing effectively about music is tricky but former cellist Gabel proves she can wield a baton, and as she conducts her quartet through rehearsals and performances, readers will want to listen to the scores they play."—*Library Journal*, Editor's Pick

"A heart-skipping portrait of ambition, friendship, and the tenderness of youth."—*The Rumpus*

"Sweeping, romantic, elegiac, *The Ensemble* gives you the feeling of being inside the music of a quartet, a look into the relationships under the music, the love and heartbreak, set against their ruthless commitment to both their art, and to each other. Aja Gabel is a phenomenon."—Alexander Chee

"In the tradition of *The Interestings* and *The Secret History*, *The Ensemble* teases apart the strands of an intense and long-lasting group friendship that both bolsters and binds its members. Aja Gabel's powerful debut offers a sensitive portrait of four young musicians forging their paths through life: sometimes at odds with each other, sometimes in harmony, but always inextricably linked by their shared pasts."—Celeste Ng,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Everything I Never Told You*

"With uncommon clarity and empathy, Aja Gabel brings us inside the passionate, complex, and sometimes cutthroat intimacy that exists among the four members of a string quartet. A wise and powerful novel about love, life, and music. I didn't want it to end."—Maggie Shipstead,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Seating Arrangements* and *Astonish Me*

"Sweeping, romantic, elegiac, *The Ensemble* gives you the feeling of being inside the music of a quartet, a look into the relationships under the music, the love and heartbreak, set against their ruthless commitment to both their art, and to each other. Aja Gabel is a phenomenon." — Alexander Chee, author of *The Queen of the Night* and *How to Write an Autobiographical Novel*

"*The Ensemble* deserves a standing ovation. A gripping tale of four musician's journeys through discord and harmony, life and love. Aja Gabel is a brilliant young writer with the rare gift of an old soul." — Mat Johnson, author of *Pym* and *Loving Day*

"I often admire novels that are platforms for their writers' own stories, upon which their own singular character, with its own singular history, is carefully incised. This, however, is a novel of a different, more expansive, and altogether more electrifying kind. Aja Gabel contains at least four complete human beings inside her, and I'm guessing countless others. She knows these people down to their cells, and she gives all of herself to them." — Kevin Brockmeier

Publicity status for
THE ENSEMBLE
AJA GABEL

Pre-Pub

Buzzfeed – 21 Exciting New Books You Need To Read This Spring – 3/16

Southern Living – Spring roundup – 3/12

Town & Country – Best New Books of April – 4/3

Vulture – 10 Books We Can't Wait to Read This Spring – 3/15

Mashable – MashReads Podcast Spring Books Roundup – 4/16

The Everygirl – 10 Highly Anticipated Novels to Read This Spring" – 4/11

Real Simple – Thankful Book – 12/6

Huff Post – 2018 Preview – 12/26

The Rumpus – 2018 Preview – 12/29

Electric Lit – 46 Books by Women of Color to Read in 2018 – 12/26

Of a Kind – Books We Can't Wait to Read – 2/19

BookPage – 2018 Preview – 1/2

The Millions – The Great 2018 Preview – 1/8

Belletrist – Brief: Chloe Benjamin – 1/22

Read It Forward – Six Picks: Debut Novels – 3/15

Barnes & Noble Review – 6 Debut Novels to Watch for in 2018 – 1/24

BookRiot – 10 May New Releases to Put On Hold At the Library – 3/13

Publishers Weekly – Starred Review – 3/12

Library Journal – Starred Review – 3/1 Issue

Library Journal – Spring/Summer Best Debut Novels – 2/27

Library Journal – Library Reads Interview – May Issue

Kirkus Reviews – Review – 5/15 Issue

Booklist – Starred Review – 4/15 Issue

Library Journal – Editor's Pick – 2/1 Issue

National TV/Radio

NPR – Weekend Edition – 5/19 air date

The Grotto Podcast – Interview – air date TK

National Print/Online

Buzzfeed – First Serial – 5/9

Marie Claire – May @Play – May Issue

O, The Oprah Magazine – Reading Room – June Issue

Real Simple – Review – May Issue (on stands 4/20)

Refinery29 – Best Books of May roundup – date TK
The Rumpus – Review Assigned
Virtuoso Life Magazine – Review – May/June Issue
Poets & Writers Magazine – Page One – May/June Issue
Poets & Writers – Critical Links Q&A – July/August Issue
BookPage – Review – May Issue
BookPage – What They're Reading Feature – date TK
C Mag – Review – May Issue
ZYZZYVA – Interview – date TK

Local Print/Online

Los Angeles Review of Books – Interview – May TK

Events

Los Angeles, CA: Skylight Books (in conversation with Maggie Shipstead) – 5/16
Houston, TX: Brazos Bookstore (in conversation with Amber Dermont) – 5/17
Charlottesville, VA: New Dominion Bookshop (in conversation with Erica Wright) – 5/19
Washington, DC: Politics & Prose (in conversation with Julia Fine) – 5/20
New York, NY: Books Are Magic (in conversation with Alexander Chee) – 5/21
San Francisco, CA / Bay Area: Towne Center Luncheon – 5/23
Green Apple Books on the Park (in conversation with Vanessa Hua) – 5/23
Cooperfield's, off-site at Thumbprint Cellar – 5/24
Portland, OR: Powell's City of Books, with Leni Zumas – 6/1
San Diego, CA: Warwick's – 6/6

제목 : THE BOOK OF JOAN

가제 : 조안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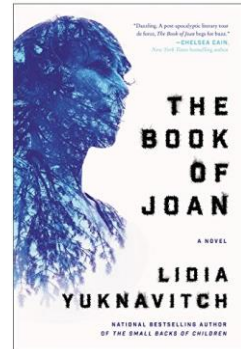
저자 : Lidia Yuknavitch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7년 4월 18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SF소설



- ★ 옥션 통해 영화화 계약! ★ 미 전역 베스트셀러, 북트레일러 링크: <https://youtu.be/srhheY5ISJ4>
- ★ 프랑스, 독일, 스페인, 터키,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판권 계약
- ★ 뉴욕타임스 2017년의 주목해야 할 도서 선정, 뉴욕타임스 북 리뷰 Editor's Choice
- ★ “문학과 상상력으로 다시 그려낸 역사, SF 스릴러, 환경친화적 판타지 장르가 뜨겁게 융합된 작품” – NPR Books

지금으로부터 30년쯤 지난 아주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지구의 처참한 멸망과 살아 남은 자들의 잔인한 생존 방식을 그린 SF 판타지 소설이 완성됐다. 놀라운 상상력이 돋보이면서도 현대 사회의 단상이 곳곳에 남아 있기에 너무 생생해서 더 소름 끼치는 소설 속 세상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 크리스틴은 강제 처형당할 날을 딱 1년 앞둔 시점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열네 살 때부터 ‘집’이 된 초대형 우주선 씨엘에서의 삶, 그리고 미세한 전기 펜으로 자신의 몸에 남기는 어린 전사 조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씨엘의 비정상적인 독재 군주에 대항하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형된 조안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그 아이가 보여준 엄청난 능력은 씨엘을 지배한 대부분의 권력자들과 달리 인류의 어머니인 자연에서 얻은 것이고 자연에서 받은 것이기에 더욱 놀라웠다는 사실을 크리스틴은 타는 듯한 고통을 참아가며 몸에 새겨간다. 기록은커녕 언급조차 엄격히 금지된 조안의 삶을 인간의 모습을 거의 잃었지만 경험한 일을 남기려는 인간본연의 특성이 남아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하는 크리스틴을 통해 우리는 씨엘이라는 인공적인 세계가 어떤 곳인지 들여다보고, 무엇이 진정 ‘인간다운’ 삶인지 생각하게 된다.

지구 온난화가 급격히 가속화되면서 지구 환경이 철저히 파괴되기 시작하자 인류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 부족한 자원을 서로 움켜쥐려는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벌어지고 위기감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갈등은 환경 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 지구에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지구 궤도를 따라 떠다니는 거대한 우주선, ‘씨엘’을 만들어낸다. 과거 우주정거장으로 만들어진 곳을 리모델링하여 탄생한 이 최후의 생존 기지에는 충분한 권력과 재산을 갖춘 사람들만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우주선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씨엘은 누구나 편히 살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이 아니었다. 광기 어린 지도자, ‘장 드 맨’이 휘두르는 무자비한 권력으로 씨엘은 우주를 떠도는 대형 수용소나 다름 없는 곳으로 변해버렸다.

아직 지구에 대부분의 인구가 남아 있던 시절, 장 드 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정신적 지주로 처음 알려졌다. 그가 조언하는 삶의 지혜나 자기계발 비법은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렸고 쓰는 책마다 불티난 듯 팔려나갔다. 그가 등장하는 강연마다 객석은 넘쳐나고 방송 출연이 줄을 이은 건 당연한 순서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씨엘이 완성되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탑승자가 채워지던 어느 날, 유명세를 안고 그곳에 오른 장 드 맨은 생존의 위기 속에 벌벌 떠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모두의 리더로 떠올랐다.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카리스마 넘치는 특유의 언변과 자신감 가득한 리더십으로 이끌던 그는 서서히 자기 뜻대로 모든 시스템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독재자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씨엘은 남은 사람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무지비한 결정도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곳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략에 공감하지 않는 씨엘의 최초 기획자 트린쿨로는 지하 감옥에 갇혀버렸다. 인간이 개발한 기술로도 씨엘 거주자들이 먹고 마실 식량을 풍족히 얻을 수는 없었기에 씨엘은 손가락처럼 쪽쪽 뺏어 나온, 보이지 않는 일종의 ‘탓줄’을 지구에 뺏아 남은 자원을 모조리 빨아 들였다. 장 드 맨은 지구 곳곳을 돌며 희박한 자원에 기대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데 몰두했다. 누구든 50세 생일이 되면 부족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강제 처형을 당해야 하는 씨엘에서 49세 생일을 맞이한 크리스틴은 남은 1년을 가장 보람 있게 보내는 방법으로, 장 드 맨과 누구보다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지구의 아이, 조안의 이야기를 자신의 몸에 남기기로 한 것이다.

사실 장 드 맨이 조안이 이끄는 지구 반란군과의 전투에서 자신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발표한 당시부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명 조작되고 감춰진 이야기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화산이 미친 듯이 폭발하던 시절, 자연을 지키는 전사를 자처했던 조안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크리스틴은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된 조안의 이야기를 피부에 새겨가고, 크리스틴의 절친한 친구인 씨엘의 발명가, 트린쿨로도 장 드 맨에 맞서기 위한 반란을 씨엘 내부에서 준비하면서 갈등은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한다. 지구와 전혀 다른 씨엘에 살면서 인체 호르몬의 형성과 기능이 완전히 바뀌고 그로 인해 남녀의 성별은 거의 모호해지고 사람들은 대머리에 속눈썹도, 눈썹도 없이 바짝 마른 허연 몸만 남은 요상한 외모로 변했다는 설정이나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생존을 지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한계가 더욱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시적이지만 전혀 모호하지 않은 크리스틴의 유려한 글 혹은 말솜씨가 가까운 미래의 비극을 생생하게 전한다.

<저자 소개>

리디아 유크나비치(Lidia Yuknavitch)는 미 전역 베스트셀러이자 2016년 오리건 도서상 소설 부문 수상작인 *The Small Backs of Children*를 쓴 작가이다. 오리건 대학교에서 문학 박사를 취득하고 소설가로 활동해 왔다. 소설 *Dora: A Headcase*와 단편집 세 권, 펜 센터 USA(PEN Center USA award) 결승 진출작, PNBA 어워드(PNBA Award) 수상작인 회고록 *The Chronology of Water*를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테드 토크(TED Talk)에서 ‘부적응자로 사는 것의 즐거움(The Beauty of Being a Misfit)’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Praise for
THE BOOK OF JOAN
LIDIA YUKNAVITCH

A New York Times Notable Book of 2017
The 25 Most Anticipated Books by Women for 2017, Elle Magazine
The 32 Most Exciting Books Coming Out in 2017, BuzzFeed
50 Books We Can't Wait to Read in 2017, Nylon Magazine
33 New Books to Read in 2017, The Huffington Post
Most Anticipated, The Great 2017 Book Preview, The Millions
New York Times Book Review Editor's Choice
National Bestseller

'I've read Ms. Yuknavitch's book *The Chronology of Water*, cover to cover, a dozen times. I am still reading it. And I will, most likely, return to it for inspiration and ideas, and out of sheer admiration, for the rest of my life. The book is extraordinary' — Chuck Palahniuk

"Brilliant and incendiary. . . . Radically new, full of maniacal invention and page-turning momentum. . . .Yuknavitch has exhibited a rare gift for writing that concedes little in its quest to be authentic, meaningful and relevant. By adding speculative elements to *The Book of Joan*, she reaches new heights with even higher stakes: the death or life of our planet."
— Jeff VanderMeer, *New York Times Book Review* (cover review)

"Stunning. . . . Yuknavitch understands that our collective narrative can either destroy or redeem us, and the outcome depends not just on who's telling it, but also on who's listening."
— O, *The Oprah Magazine*

"[A] searing fusion of literary fiction and reimagined history and science-fiction thriller and eco-fantasy. . . .Yuknavitch is a bold and ecstatic writer."
— NPR Books

"[*The Book of Joan*] offers a wealth of pathos, with plenty of resonant excruciations and some disturbing meditations on humanity's place in creation . . . [It] concludes in a bold and satisfying apotheosis like some legend out of *The Golden Bough* and reaffirms that even amid utter devastation and ruin, hope can still blossom."
— *Washington Post*

'*The Chronology of Water* . . . has lately achieved cult status. Lidia Yuknavitch . . . imparts a visceral power to the experience of lust, a power unmatched in any recent account I can think of.' — *The Atlantic*

제목 : THIRTEEN

가제 : 열세 번째 배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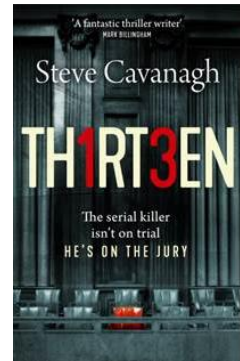
저자 : Steve Cavanagh

출판사: Orion

발행일: 2018년 1월 25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스릴러 소설



- * “흡입력 있는 반전과 인물들이 섬세하게 조합된 법정 드라마. 스티브 카베너는 존 그리샴을 잇는 새로운 작가다.” – 『비하인드 허 아이즈』의 작가 새라 핀보로
- *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전제,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이어지는 전개, 놀라운 클라이막스까지, 엄청난 소설.” – 소설가 리 차일드

헐리우드 최고의 커플, 바비와 아리엘라의 결혼 생활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연예란의 단골 기사거리다. 그러나 연예란이 아닌 곳에 그들의 뉴스가 대대적으로 실리는 사건이 벌어진다. 아리엘라와 경호실장인 칼이 처참하게 살해된 채로 발견된 것이다.

두 피해자가 발견된 곳은 바비와 아리엘라의 침실이였다. 아리엘라는 칼에 수 차례 찔린 채였고, 경호실장인 칼은 둔기에 두들겨 맞은 채였다. 그리고 발견 당시 두 사람 모두 나체였다. 사건의 용의자로는 아리엘라의 남편 바비 솔로몬이 지목되었다. 피해자들이 나체인 상태로 침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불륜을 목격하고 이성을 잃은 바비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는 해석이 당연해 보였기 때문이다. 바비가 살해자라는 추측 기사가 연일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고 바비의 재판일에 온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

살인자가 배심원 석에 앉아있다

그러나 사건의 진짜 범인인 조슈아 케인이라는 남자는 태연하게 바비의 재판의 배심원 석에 앉아있었다. 작가는 처음에는 독자들에게 조슈아 케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그의 시점에서 글을 전개해 나간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와 번갈아가며, 바비의 변호사인 에디 플린의 이야기가 독자들 앞에 펼쳐진다.

에디는 유능한 변호사였으나 불안정한 결혼생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에 이런 대형 사건은 맡고 싶지 않았었다. 그래서 동료 변호사 루디가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온 재판을 같이 준비하자고 제안했을 때만 해도 완강히 거절했다. 그러나 루디는 ‘아직 증명하진 못했지만’ 바비가 결백하다고 믿는다는 뜻밖의 의견을 에디에게 털어놓았다. 함정에 걸린 것 같다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유의 특징과 표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비에게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루디의 간곡한 요청에 일단 사건 자료만 훑어보기로 한 에디는 이상한 점을 발

견한다. 살해 당한 경호실장의 목에 구겨 지폐가 구겨 떨어져 있던 것이었다.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죽은 사람의 목구멍에 지폐를 구겨 넣었을까? 그 지점에서 에디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분노에 의한 것이 아닌 기괴한 살인 행각임을 직감하고, 루디를 도와 바비의 바비의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 나선다.

에디는 전직 FBI 수사관 출신인 하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한다. 살해 무기는 칼과 야구 방망이로 추정되지만 하나가 끝까지 발견되지 않는 등 경찰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놀라운 내막이 하나 둘씩 드러난다.

그리고 마침내, 에디와 조슈아 케인과 바비가 법정이라는 한 공간 안에서 만나게 된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치밀한 케인의 준비 과정이 하나하나 묘사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배심원들이 쪽지에 비밀리에 써 넣는 문구들도 함께 제시되면서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된다.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배심원 석에 앉아 있는 살인마는 끝까지 들키지 않고 다른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선고를 끌어내기 위한 철두철미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을 사리던 에디가 살인마를 잡기 위해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고투를 벌이는 과정과 그를 돕는 조사관 하퍼의 이야기도 등장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만들고, 평범한 사람은 전혀 떠올릴 수도 없는 한 살인자의 심리적 변화와 시각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간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되며 더 큰 공포를 느끼게 한다.

조슈아 케인은 어떻게 철저한 증거를 통해 선정되는 배심원단에, 그것도 자신이 누명을 뒤집어 씌운 바비의 생사가 결정될 재판의 배심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왜 그는 바비를 직접 처단하는 대신 법의 심판으로 유죄를 받게 만들려고 자신을 노출하는 위험을 감수했을까? 과연 바비는 누명을 벗게 될까? 에디는 조슈아 케인을 알아보고 그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모자라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법정에 나온 이상한 살인자와 예리한 변호사의 숨막히는 두뇌 대결이 책장을 쉬지 않고 넘기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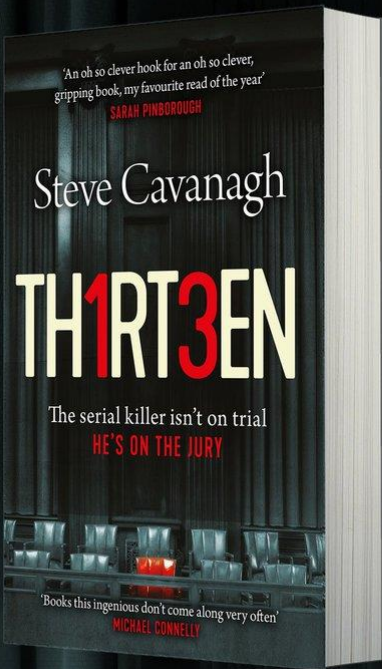
<저자 소개>

스티브 카배너(Steve Cavanagh)는 벨파스트에서 태어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을 배경으로 한 법정 스릴러 시리즈의 첫 번째 소설 『The Defense』로 영국 범죄소설가협회 선전 2015년 올해의 스릴러 후보에 올랐다. 후속작 『The Plea』는 2017년에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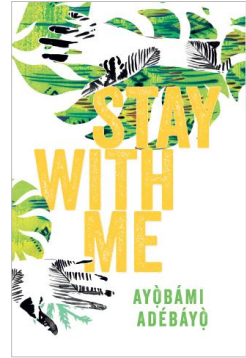
Praise for
THIRTEEN
STEVE CAVANAGH

THIRTEEN review on **Irish Independent**, 17 Feb 2018

<p>THRILLERS TH1RT3EN Steve Cavanagh</p> <p>Orion, trade paperback, 356 pages, €10.45</p> <p>Eddie Flynn, a former highly successful con artist turned equally expert criminal defence attorney, is reluctantly drawn into a high-profile Manhattan murder trial. Movie idol Robert 'Bobby' Solomon has been accused of killing his beautiful wife, Ariella Bloom, and her lover.</p>		<p>Flynn realises he's being set up as the fall guy by Bobby's main lawyer should the verdict go against the Hollywood star, but when strange and sinister things begin to happen in the courtroom, he suspects other and more lethal forces may be at play and manipulating the trial from within.</p> <p>Flynn senses that a serial killer has somehow murdered his way on to the jury, but how to prove it is another and personally extremely dangerous question. Belfast-based author and lawyer <u>Steve Cavanagh</u> delivers Grisham-on-steroids courtroom drama in this fourth outing for the charismatic if unconventional Flynn.</p>
---	---	---

<p>'IF YOU READ A THRILLER AS GOOD, IT'S ONLY BECAUSE YOU'VE READ THIS ONE TWICE.'</p> <p>MARK BILLINGHAM</p>	
	<p>'An oh so clever hook for an oh so clever, gripping book...my favourite read of the year.'</p> <p>SARAH PINBOROUGH</p>
	<p>'Books this ingenious don't come along very often.'</p> <p>MICHAEL CONNELLY</p>
	<p>'Great hook and the book lives up to it!'</p> <p>IAN RANKIN</p>
	<p>'A brilliant, twisty, ingeniously constructed puzzle of a book. Steve Cavanagh pulls off an enviable premise with panache.'</p> <p>RUTH WARE</p>
	<p>'Smart and original. This is a belter of a book.'</p> <p>CLARE MACKINTOSH</p>
	<p>'This guy is the real deal. Trust me.'</p> <p>LEE CHILD</p>

제목 : STAY WITH ME
가제 : 내 곁에 있어줘
저자 : Ayobami Adebayo
출판사: Canongate Books
발행일: 2017년 3월 2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세계문학/소설



★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맹렬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사랑스러운 소설!” – 『시녀이야기』의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

★ 스웨덴, 이탈리아 판권 계약

★ 2017년 베일리 여성 작가상(BAILEYS WOMEN'S PRIZE) 최종후보작

★ “여성의 심리와 남성의 끝없는 자신감이 만들어내는 상처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 「가디언」

★ “사랑과 슬픔, 모성에 관한 감동적인 소설” – 「북셀러」, 에디터스 픽 선정

세상에 다시 없을 진정한 사랑도 이겨내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그리고 사랑은 수천 개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져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반드시 사랑해야 결혼하는 것도 아니었던 시절, 기적처럼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 찬란한 미래만 꿈꿨던 두 사람은 가족들의 압박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압력 속에 무참히 휘둘리기 시작한다. 이야기는 가장 행복했던 감정과 시간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날카롭고 섬세하게 그려 나간다.

1980년대 나이지리아, 예히데와 아킨은 대학에 다니면서 처음 만나 곧장 사랑에 빠졌다. 엄마가 자신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후,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인 나라에서 예히데는 네 명이나 되는 게모들 틈에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근거 없는 미신은 엄마의 죽음을 예히데의 탓으로 돌렸고 가족 중 누구도 그런 예히데를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았다. 집안의 장남으로 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아킨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은 적 없는 예히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1985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더없이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아킨은 은행에서 일하고 예히데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얼굴만 바라봐도 웃음이 절로 나올 만큼 서로를 마음 깊이 사랑하는 두 사람에겐 반짝이는 미래만 기다리는 듯 했다.

금세 아이가 생길 줄 알았던 예히데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미 아킨의 집에서는 새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킨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장남이라 반드시 대를 이을 아기를 낳아야 한다는 집안 어른들의 잔소리는 하루도 그칠 날이 없었고 아킨 자신도 귀여운 아이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예히데는 불임 치료는 물론이고 아이를 갖게 해준다는 온갖 치유사, 주술사를 다 찾아 다니고 별의별 차와 음식을 마시고 먹어보는 등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직 젊은 나이로 찬찬히 기다려볼 수 있지만 가족들의 성화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자 예히데도, 아킨도 지쳐갔다.

결국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를 들이기로 결심하자, 예히데는 큰 충격에 빠진다. 엄마가 없는 자신을 딸처럼 보듬어주고 아껴준 시어머니의 선택이라 반발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결국 아킨마저 시달림을 견디지 못해 둘째 부인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사랑하는 남자를 아이 때문에 다른 여자와 공유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예히데가 인정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었다.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는 한 이 최악의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기에 고통도 감당할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얼굴만 봐도 깔깔대고 신나고 즐거웠던 예히데와 아킨은 서로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커다란 벽에 가로막힌 숨막히는 사이로 변질되어가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결심한 예히데는 극단적인 길을 떠올린다. 절대적인 무기력함,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은 그녀를 궁지로 몰아 넣는다. 그리고 아킨의 배신과 비밀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난다.

정치적 불안감이 높았던 80년대 나이지리아를 배경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무너져가는 과정과 쓰라린 상처와 고통이 만들어내는 비극적 결말,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욕구와 문화적인 압력, 그리고 극도의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애처로운 노력을 생생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아요바미 아데바요(Ayobami Adebayo)는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 오바페미 아볼로보 대학교에서 영문학으로 학사,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어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에는 뉴욕 레딕 하우스(Ledig House) 국제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2015년에는 미국 헤지브룩 국제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현재 나이지리아의 문학 잡지 「Saraba Magazine」에서 소설 편집자로 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Praise and publicity updates for STAY WITH ME AYOBAMI ADEBAYO

NetGalley UK's Top Ten Books, March 2017

It's another exciting month with ten varied choices from all of March's top titles. There are welcome returns for Nina George, author of *The Little Paris Bookshop*, Mohsin Hamid, author of *The Reluctant Fundamentalist*, as well as the very last instalment in the *Geek Girl* series. We also have some incredible new discoveries, including our book of the month, the brilliant *Stay with Me*, and the mind-bending *Fever Dream*. Enjoy!

Book of the Month

Request It >



Stay With Me
by Ayobami Adebayo

Already a favourite with NetGalley members, *Stay with Me* is a heart-breaking, compelling and engrossing tale of family, desire, marriage and the power of love.

Yejide is hoping for a miracle, for a child. It is all her husband wants, all her mother-in-law wants, and she has tried everything - arduous pilgrimages, medical consultations, dances with prophets, appeals to God. But when her in-laws insist upon a new wife, it is too much for Yejide to bear. It will lead to jealousy, betrayal and despair.

Set amongst the social and political turbulence of 80s Nigeria, this is an exceptional, richly emotional debut, exploring all aspects of the bonds of love.

Canongate | Literary Fiction

Stay With Me was included in the

Financial Times Summer Books 2017 round-up



iBooks chose *Stay With Me* as one of their **Best Books of 2017** so far



Stay With Me
by Ayobami Adebayo
Canongate £14.99
Shortlisted for this year's Baileys Women's Prize, Adebayo's assured debut tells of a couple's struggles to conceive, set against the societal and political pressures of 1980s Nigeria. Nar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man and wife, it is an unsentimental yet affecting portrayal of the trials of marriage and, later, parenthood.

'Scorching, gripping, ultimately lovely!' — Margaret Atwood, Twitter

'Colourful, vibrant, energetic – a stunning tale of what happens when societal expectations collide with reality' — Tendai Huchu, author of *The Hairdresser of Harare*

'Just when I thought I knew where the story was going, suddenly I was left wondering all over again.

I read it late into the night – Ayobami Adebayo definitely owes me several hours of sleep!' —

Chibundu Onuzo, author of *The Spider King's Daughter*

'A compulsive read . . . Just brilliant. Adebayo is an astounding storyteller – an exciting addition to the emerging voices in African writing' Jennifer Makumbi, author of *Kintu* and winner of the Commonwealth Short Story Prize

'[Ayobami Adebayo's] clever and funny take on domestic life and Nigerian society is a welcome addition to her country's burgeoning literary scene. Despite the intense sadness of her subject matter, she has produced a bright, big-hearted demonstration of female spirit, as well as the damage done by the boundlessness of male prid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7/mar/09/stay-with-me-by-ayobami-adebayo-review>

'A subtle and unsentimental triumph'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6829e28e-3403-11e7-99bd-13beb0903fa3>

'Adebayo, who is 29, is an exceptional storyteller. She writes not just with extraordinary grace but with genuine wisdom about love and loss and the possibility of redemption. She has written a powerfully magnetic and heartbreaking book.'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7/07/24/books/review-ayobami-adebayo-stay-with-me.html>

'The scope of *Stay With Me* is huge, and yet, the writing of it is painfully intimate, the problems and wounds so personal and tightly wrought that, at times, you want to put the book down and step away, as if, with every new revelation, you are further intruding, unforgivably, into this couple's life.

Fortunately, the brilliance of Adebayo's storytelling stops you.' *Press and Journal*

<https://www.pressandjournal.co.uk/fp/lifestyle/books-reviews/1202170/book-review-stay-ayobami-adebayo/>

'Both intimate and sweeping, *Stay With Me* is the story of Yejide and Akin, in love but torn apart by not only their own desire to have children, but the weight of expectation from their families and community. Adebayo's exploration of grief, motherhood and how sometimes you just can't stop loving someone is exquisite' *Stylist*, Best New Books for 2017

<http://www.stylist.co.uk/books/10-exciting-new-books-to-look-forward-to-in-2017#gallery-2>

'Ayobami Adebayo's enthralling debut strikes deep from outset' **Irish Times**

<http://www.irishtimes.com/culture/books/childless-women-in-an-unforgiving-society-1.3042641>

Ayobami Adebayo was interviewed on the **Guardian** about **Stay With Me**: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7/feb/26/ayobami-adebayo-nigerian-author-stay-with-me-interview-family-children-happiness>

제목 : A RIVER OF STARS

가제 : 별빛 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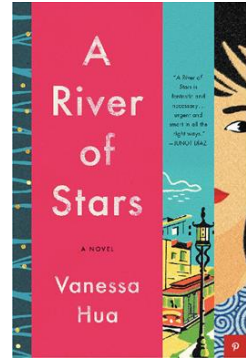
저자 : Vanessa Hua

출판사: Ballantine Books

발행일: 2018년 8월 1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 "친구 하나 없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미국 땅에서 임신부 스칼렛은 어떻게 살 길을 찾아낼까? Venessa Hua의 이 소설은, 가난하고 투표권조차 없는 사람들을 냉담하게 대하는 이 세상에서, 저항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생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룬 흡인력 있는 이야기다." – 전미문학상 최종후보작 『Pachinko』의 작가 이민진
- *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모든 면에서 환상적이고 똑똑한 소설" – 『오스카 와오의 짧은 놀라운 삶』의 작가 주노 디아스

서른 여섯의 스칼렛은 중국의 큰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원이다. 회사의 회장인 예순 살의 엔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뱃속에 그의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 딸이 셋이나 있는 엔은 집안 대대로 일군 사업체와 부를 물려줄 아들이 없어서 늘 아쉬웠던 차에, 스칼렛이 임신 6개월이 지나 뱃속의 아이가 사내아이라는 소식을 전하자, 뭘 듯이 기뻐했다. 자신을 꼭 닮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오래 전 포기했던 꿈을 드디어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엔은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올랐다. 그래서 스칼렛이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하도록 설득한다.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곳인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게 하는 것부터가 자신의 작은 왕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왕자님에게 꼭 맞는 출발이 되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비행기 한 번 타본 적 없는 스칼렛은 완강히 거부했지만 끈질긴 엔의 설득에 넘어가고 만다. 그리하여 가족 모두를 속이고, 난생 처음 비행기에 올라 20시간이 넘는 긴 여행 끝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다. 엔이 직접 예약해둔 임신여성들을 위한 최고급 시설에서 편안히 먹고 자고 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한다. 돈 많고 까탈스러운 여자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참으며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먹고, 아기를 순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온갖 일정을 소화하며 가족들, 엔, 친구들을 향한 그리움과 싸우며 시간을 보낸다.

회장님의 기업을 물려 받을 남자 아이를 가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초음파 검사를 받던 중 의사로부터 예상 밖의 말을 듣는다. 의사가 스크린을 들여다보며 “이 아가씨가 엄청 활발하네요, 수영 선수 같아요.”라고 말한 것이다. 아가씨라니? 중국에서 받은 초음파 검사에서는 분명 남자아이라고 했는데! 남자아이라서 미국 행이며 앞으로 엔과 함께 할 모든 계획이 마련된 것인데, 여자아이라니. 당황한 스칼렛이 재차 확인을 요구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자신의 넷째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엔은 모든 지원을 끊은 것은 물론,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될지도 모를 스칼렛과 아기를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한다. 기회라고 생각했던 임신이 한 순간에 오히려 엄청난 위협으로 변한 것이다. 위기를 느낀 스칼렛은 엔의 힘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달아나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도망 길에 나선 스칼렛의 곁에 임신부 시설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버릇 없는 여학생 데이지가 따라 붙는다. 자신을 그 곳에 들여보낸 돈 많은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도망간 아이 아빠를 찾겠다며 무작정 스칼렛을 따라 나선 것이다. 원치 않는 동행까지 데리고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도착한 스칼렛은 그곳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실낱 같이 가는 희망을 붙들고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무수한 이민자들과 만난다. 일단 아기를 구하기 위해 도망쳤지만 앞날이 캄캄했던 스칼렛은 그 곳곳한 사람들의 용기를 보면서 새로 생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보리라 다짐한다. 그러나 엔의 추격이 점점 스칼렛의 목을 조여 온다.

불안한 미래, 아무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위트가 가미된 따뜻한 문장으로 그려낸 이야기에선 머무름 곳, 행복한 집을 찾기 위해 굳건히 싸워 나가는 한 엄마와 다양한 이민자들의 놀라운 의지가 풍성하게 담겨 있다. 가난한 사람들과 돈 많은 사람들,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기본적인 것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저마다 다른 꿈과 희망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바네사 화(Vanessa Hua)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칼럼리스트이자 단편 선집 『Deceit and Other Possibilities』을 쓴 작가다. 지난 20여 년간 언론보도와 소설에 등장하는 아시아와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에 관한 글을 써 왔다. 로나 자페 재단(Rona Jaffe Foundation)이 수여하는 작가상, 아시아태평양 미국 문학상(Asian/Pacific American Award for Literature), 샌프란시스코 재단이 수여하는 제임스 D. 펠란 상(James D. Phelan Award) 등을 수상했다.

Praise for
A RIVER OF STARS
VANESSA HUA

"A columnist for the San Francisco Chronicle and author of the glowingly reviewed small-press debut collection *Deceit and Other Possibilities*, Hua claims multiple awards that include a Rona Jaffe Foundation Writers' Award and an Asian/Pacific Award for Literature. [In *A River of Stars*], Chinese factory clerk Scarlett Chen is pregnant by her boss/lover, who sends her to America to give birth and then betrays her. Soon she's on the run from the maternity center with another mother-to-be."

—Library Journal's Fiction Previews of Power Debuts

"A River of Stars is Hua's first novel, and its gripping tale of Scarlett Chen, a Chinese boss's mistress sent to America to birth a child, is as moving as it is entertaining."

—Electric Literature

"A River of Stars is a page-turner, a riveting story of parenthood, migration, and the choices we make to survive. Fierce and determined, resourceful and resilient, Scarlett Chen is an unforgettable protagonist you can't help but root for."

—Lisa Ko, author of National Book Award finalist *The Leavers*

"In *A River of Stars*, Vanessa Hua illuminates the lives of her characters with energy, verve and heart. Hua tracks the minutest emotional terrain of these characters while simultaneously interrogating the cultural and economic forces that shape their worlds. This book holds your attention until the very last page."

--Emma Cline,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The Girls*

"A River of Stars splits 'the Chinese immigrant story' into a kaleidoscopic spectrum, putting human faces to the many groups—rich and poor, privileged and marginalized, documented and not—who come to America. Vanessa Hua's debut is an utterly absorbing novel about the ruthless love of parenthood and the universal truth that sometimes family runs deeper than blood alone."

—Celeste Ng, New York Times-bestselling author of *Little Fires Everywhere* and *Everything I Never Told You*

제목 : KINTU

가제 : 킨투 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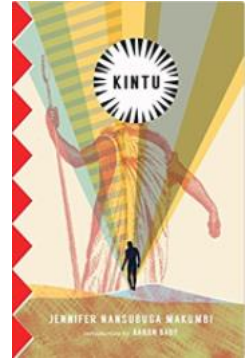
저자 : Jennifer Makumbi

출판사: Transit Books

발행일: 2017년 5월 16일

분량 : 446 페이지

장르 : 세계문학/소설



★ 2018년도 윈덤 캠벨 문학상(Windham-Campbell Literature Prize) 소설 부문 수상

★ 터키,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판권 계약, 커먼웰스 단편 소설상 수상 작가

★ 퍼블리셔스 위클리 2017년 최우수 도서, 엡살랏 아프리카 소설 데뷔 부문 후보

★ “원대함과 숭고함이 담긴 서사. 알려지지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위대한 이야기” – 맨부커 상 수상작 『일곱 건의 살인에 대한 간략한 역사』의 작가, 말론 제임스

2014년에 케냐에서 처음 출간되어 비평가들과 일반 독자들 모두에게 큰 호평을 받고 올해 윈덤 캠벨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 소설에서, 우간다 출신의 작가는 250여 년에 걸쳐 한 집안에 내려진 저주와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된 이야기로 조명한다. 1750년부터 킨투 집안을 짓누른 저주가 성별, 직업, 삶의 모습이 모두 다른 자손들에게 어떤 파장을 낳았는지, 우간다의 역사와 간다 족에서 구전되어 온 설화와 더불어 흡입력 있는 이야기로 전해진다.

여섯 개의 이야기에 앞서 나오는 프롤로그는, 킨투 가문의 최근을 다룬다. 2004년 1월의 이른 아침, 카무 킨투는 동거하는 애인의 집에 찾아온 지역 관리들에게 불려 나간다. 아내와 본가는 따로 있지만 2년 전부터 아예 애인과 함께 살던 카무를 찾아온 사람들은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으니 잠시 따라오라고 하고, 카무는 자다 일어나 혈령한 티셔츠 차림으로 나선다. 동네를 벗어나 큰길에 다다르자 카무와 함께 걸던 관리들이 갑자기 카무의 두 팔을 등 뒤로 돌리고 줄로 묶는다. “왜 도둑놈 묶듯이 손을 묶는 거죠?” 당황한 카무가 이 말을 던진 순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도둑’이라는 말을 들은 주변 아이들이 도둑을 잡았다고 외치고, 행인들과 장사 준비를 하던 근처 상인들이 벌떼처럼 몰려온 것이다. 긴 식민지 통치를 하고 민주주의를 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긁어가는 정부로부터 시달리고 또 시달린 사람들에게 도둑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존재였다. 카무 못지않게 당황한 관리들이 서둘러 진정하라고 외치지만 소용없었다. 도둑은 떼려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 틈에서 떠밀리던 카무는 급기야 도끼를 들고 나타난 성난 남자의 손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

첫번째 이야기는, 저주의 시작인 1750년, 우간다가 부간다 왕국이던 시기에 부두라는 지역을 통치하던 키다 킨투가 부간의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형제를 죽이고 새로 왕권을 차지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한 긴 여정에는 그가 데리고 있는 부하

들과 입양한 아들 칼레마도 함께 했다.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길에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가득하다. 한 지역의 통치자로써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전략적으로 결혼한 여러 아내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소란을 바로 잡고 평화롭게 균형을 맞출 방법을 찾아야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새 왕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부탁할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잔뜩 분노가 치민 어느 순간 칼레마의 머리 뒤쪽을 세게 때렸는데, 쓰러진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다. 당황한 키다 키투는 아이를 서둘러 묻는데, 묘 자리는 손대지 말아야 할 장소였다. 여기에 칼레마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에 분노한 친아버지의 저주까지 더해지면서 시작된 키투 집안의 비극은 한 때 신망 높은 리더였던 키다 키투가 모두에게 외면 당하고 홀로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고, 그가 가장 총애했던 아내 응나카토와 후계자로 점 찍은 발레에게 벌어진 끔찍한 사고부터 대대로 이어진다.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 받고 힘들게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지만 죽은 쌍둥이 자매를 잊지 못해 늘 괴로워하는 수비 키투의 삶도 등장한다. 양부모와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고 진짜 가족을 그리워하던 수비는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권유로 자신을 버린 친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극성스러운 아내와 함께 기독교로 개종한 카나니 키투는 우간다가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동안 광신도로 살다 자식들까지 수치스러운 비밀을 안고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만다.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면서 악착같이 성공을 위해 달려온 이삭 키투는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해 전쟁에 나가 끝내 살아남지만,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찾아온다. 감염된 것이 확실하다면, 아내와 아이에게도 바이러스를 옮겼을 것이란 걱정과 검사 결과만 기다리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는 이삭의 삶에 이어, 소설은 맨 첫 부분에 등장한 카무의 부친 미시 키투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된 미시는 아프리카인 전체를 향한 서양인들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다 우간다로 돌아왔지만, 고향에서도 자신을 고까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에 크게 좌절한다. 이들 모두 사회계층과 성별, 교육 수준, 종교, 정치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와 영국 식민지 시절의 고통, 그 전후의 상황들과 교차한다. 등장 인물들의 제각기 다른 삶과 가문의 서사가 빛을 발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니퍼 마쿰비(Jennifer Makumbi)는 우간다 출신의 장편, 단편 소설가다. 랭커스터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단편 『Let's Tell This Story Properly』로 2014년 커먼웰스 단편 소설상을 수상했다.

Praise for
KINTU
JENNIFER MAKUMBI

'A soaring and sublime epic. One of those great stories that was just waiting to be told.' — Marlon James, Man Booker Prize-winning author of *A Brief History of Seven Killings*

'The most important book to come out of Uganda for half a century.' — Giles Foden, author of *The Last King of Scotland*

'Magisterial.' — New York Review of Books

'A masterpiece of cultural memory, *Kintu* is elegantly poised on the crossroads of tradition and modernity.' — Publishers Weekly (Starred Review)

'*Kintu* is a masterpiece, an absolute gem, the great Ugandan novel you didn't know you were waiting for.' — The New Inquiry

'*Kintu* is an entertaining, engrossing, and, crucially, intimate read. It is an epic that doesn't ignore character for scope. Rather, *Kintu* is a novel that thrives on its compassionate investigation of the individual within the boundaries of an epic, within the boundaries of a nation's rapidly changing identity....Makumbi has crafted an extraordinary novel that is unafraid and beautifully unashamed to examine Uganda's rich culture. It is a novel that is proudly Ugandan; it is a novel that deserves to be widely read.' — The Irish Times:

<https://www.irishtimes.com/culture/books/kintu-by-jennifer-nansubuga-makumbi-review-an-engrossing-and-intimate-read-1.3374119>

* Great review of KINTU in the Financial Times

'Kintu is a triumph of east African literature and one that delights in the pliant nature of storytelling itself, the ways in which family lore is passed down and the impact of variations on it.'

Family lore

A rich drama set in Uganda examines the power of family legacies amid wider changes. By Zoë Apostolides

The prologue alone of this remarkable debut novel is devastating in its violence. The setting is modern-day Kampala, and the mood is sombre: a man is brought in for questioning by local authorities, accused of stealing and then battered to death by a furious mob. The man is Kamu, a direct descendant of Kintu Kidda, the novel's fictional anti-hero, and Kamu's untimely end is seen as a direct result of the curse that his once-powerful ancestor unleashed on his family. "Some blood is sticky: you don't just spill it and walk away like that," mutter the bystanders, remarking on the murder's inevitability: "It was in the name."

Jennifer Nansubuga Makumbi's debut, first published by the Kenyan Kwani Trust in 2014, is a powerful example of the family-saga genre at its best. Following Kamu's death, the story proper starts with a journey that commences both literally and metaphorically in 1750, as Kintu — the leader of his clan in Buddu Province — leaves his home to pay homage to the kingdom of Buganda's new kabaka. Kintu imagines the "royal madness" awaiting him; he has, so far, served five kings as a tribe leader in charge of his own clan, paying tribute to the king, and is all too aware of the political orchestration and machinations that can unseat a new ruler within moments and lead to bloodshed. And in many ways the ever-changing landscape that Makumbi and her research capture so well reflects these turbulent times.



Kintu
by Jennifer
Nansubuga
Makumbi
Oneworld £14.99/
Transit Books \$16.95
410 pages

The party moves through dense rainforests, miles of barren land and hillsides dotted with caves. "The moon now tailed them at a distance like a nosy little brother," while "closer to the stream, frogs croaked as if hired to perform." There are fascinating insights, too, into the mythology and folklore, the omens and portents that comprise just one tribe's ancient culture and its deep roots.

As the group of warriors crosses the desert, a fatal accident will provide

There are fascinating insights into the mythology and folklore that comprise one tribe's ancient culture

Kintu's descendants with a dire inheritance of bad luck that shapes the book's remaining five segments. Each of these perspectives explores the ramifications of belonging to one of the many branches of Kintu's sprawling lineage: the welcome inclusion of a family tree at the beginning is a useful reference point. Although the first section is the most engaging, Makumbi maintains a narrative pace throughout with short, sharp chapters, but this is also a novel that rewards readers for paying attention to the subtle links between each member.

The prevalence of twins, for instance, and the symbolism attributed to them, the rippling multi-generational effects of mental illness, ideals of masculinity and hidden identities within families fade and recur within each portion.

Kintu is elastic in its narrative approach, expanding and contracting to focus on the individual lives of Kintu's descendants Suubi, Kanani, Isaac and Miisi — a chorus of posterity in a pre and post-independence nation, "as Buganda faded and Uganda started to take root". Isaac, for example, grows up in the mid-1960s, surrounded by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around him as "Uganda — a European artefact — was still forming as a country rather than a kingdom in the minds of ordinary Gandas." These fluctuations in perspective increase the sense that each of the novel's episodic acts would work as novellas in their own right, examining colonialism, the rise of Idi Amin, the ravages of war, the fear of HIV and the ways in which families are formed, displaced and stitched back together amid these wider changes. The one constant is the summons most of the main characters receive in the wake of Kamu's death — after 250 years, it is time to break the curse and hold a reunion. That Makumbi is able to bring these strands together once more in the long-awaited climax is testament to the ambition of the work.

Kintu is a triumph of east African literature and one that delights in the pliant nature of storytelling itself, the ways in which family lore is passed down and the impact of variations on it. "What you don't realise . . . is that children's heads are a space upon which parents inscribe texts," says Miisi. This rich drama examines the power of such legacies, and the potential for even the most far-flung, estranged families to unite in the face of ages-old evil.

* Lovely review for KINTU in The New Statesman:

'Kintu reveals the profound fracturing of a local African community that results from uneven experiences of modernity impacting its traditional ways of life...the novel's 18th-century material presents a coherent, self-contained and consistently engaging narrative... Indeed, throughout Kintu, through and beyond the massive cat's cradle of connections that Makumbi works up between past and present, her characters press on, struggling to make sense of their situations.'

THE CRITICS | BOOKS

A clan, a curse

Randy Boyag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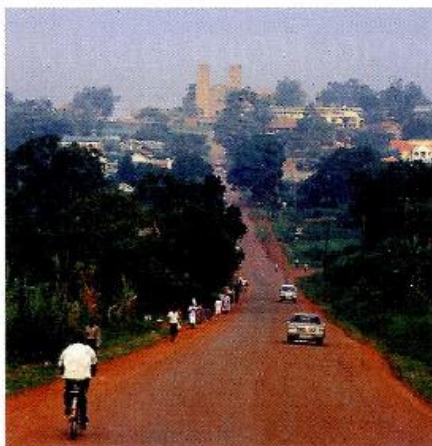
Kintu
Jennifer Nansubuga Makumbi
Oneworld, 432pp, £14.99

Two books that immediately come to mind, in trying to make sense of Jennifer Nansubuga Makumbi's ambitious new novel *Kintu*, are Christos Tsiolkas's *The Slap* and Chinua Achebe's *Things Fall Apart*. Like *The Slap*, *Kintu* concerns the unexpected and dramatic consequences, for a widening group of people, of a rash act of violence that an adult commits against a child. Like *Things Fall Apart*, *Kintu* reveals the profound fracturing of a local African community that results from uneven experiences of modernity impacting its traditional ways of life.

That said, the overwhelming scale and sweep of Makumbi's effort stands in dramatic contrast with these novels. *Kintu* explores some three centuries of fraught, often tragic human experience, focused on a Ugandan nobleman and his descendants, and the actions, memories, traditions and spirits that both motivate and haunt them.

The novel's main action takes place in two distinct settings, the 18th-century environs of the Buganda kingdom, and that of its colonial and postcolonial successor, late-20th-to-early-21st century Uganda. Kintu Kidda presides over a clan in a provincial outpost of Buganda and, upon the emergence of a new king in 1750, leads a delegation on a long and difficult journey to join other governors in demonstrating their fealty to the new ruler. Kintu Kidda is no stock big man in a village: melancholic, earnest, and weighed down by the pressures of having to provide for multiple wives and children, while also uncertain how to navigate potentially lethal court politics, he's a tired alpha male prone to taking out his stress on those around him.

When his amiable if careless son Kalema sips water from his father's gourd, breaking a taboo concerning the exclusivity of Kintu Kidda's cookware, he receives a great slap in recompense, the force of which kills him – to everyone's shock, especially Kintu Kidda himself. "He had never struck a child, he had made all the right sacrifices for the journey, he had not offended any god"; and yet his life and the lives of his descendants are profoundly affected by this act and by the half-truths, concealments and suppressions associated with it, which



Kintu spans three centuries of life in Uganda

eventually send the broken father into self-imposed exile.

Makumbi impressively establishes a dual source of meaning from the boy Kalema's untimely death and re-entry into the novel as an unquiet spirit. The event and subsequent presence can be understood as both a genuine, permanent curse for the family, and as an appropriately fatalistic, psycho-familial justification for unrelated failings through the centuries. Makumbi explores this latter theme through

The family is connected to a powerfully blighted man from long ago

the story of Kintu Kidda's descendants, all of whom are preparing, with differing levels of interest, for a great reunion of the clan in 2004.

While the novel's 18th-century material presents a coherent, self-contained and consistently engaging narrative, its more contemporary material is far messier and uneven, both in terms of the individual lives of characters – who experience Idi Amin's rule, guerrilla warfare, small-town mob violence, Christian missionary work, HIV diagnoses and false paternities – and in their relationships to each other and to Kintu Kidda.

Some of the individual storylines stand out more than others. Suubi is a sickly and unwanted little girl who in the late 1980s goes to work for a wealthy family in their fine home in the Makindye Hill district of Kampala. Independent of its connection to the rest of the novel, Suubi's story is moving in its balancing of the girl's longing to be part of a family and a world more comfortable and stable than anything she has ever known, and her wise check against such longing: "Focus on the beautiful things like their bathtub, rich food, and they do Christmas like in films. But you can't be their child."

Elsewhere, Isaac survives a far rougher childhood than Suubi's to become a promising university student and, eventually, a popular disco DJ and full-time ladies' man. By 2004 he's an engineer and also a widowed father. His young son Kizza's serious illness may be related to the disease that killed his mother, which Isaac himself may also have, though he's loath to have this confirmed: "The day Isaac took Kizza back to school he sat in his office dejected. He ignored the two letters on his desk. Instead, he contemplated future hospital runs, Kizza's schooling disrupted and the boy's pain and suffering. What if he died first and left Kizza, sick and at the mercy of the world?" His own experience, and the experience more broadly revealed across this novel, offers little prospect of mercy.

But that prospect, however faint, remains. Indeed, throughout *Kintu*, through and beyond the massive cat's cradle of connections that Makumbi works up between past and present, her characters press on, struggling to make sense of their situations – made difficult by assorted economic, social and familial pressures – and of what it means for them all to have this shared connection to a powerful, powerfully blighted man from long ago.

As one character observes late in the novel, people in this clan suffer "For knowing and refusing to know"; their survival depends on how they choose to carry these distinctive burdens and, at times, out of love and need and mercy, how they share the necessary effort with each other. ●

STEP INTO THE
MOST EXCITING
SCHOOL IN ENGLAND


**HURTWOOD
HOUSE**
hurtwoodhouse.com